

오경에 나타난 장자 이스라엘의 신학적 의미

윤형(장신대)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의 목적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언급된 장자, 이스라엘이 오경에서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는 구절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왜 장자라고 표현했을까? 그러면 그 장자라는 낱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 구절의 문맥상 위치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에게 이것을 직접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향후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한 마디로 요약해주는 표현이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런 표현으로 보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대를 이을 장자로 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인간 사회에서 장자가 집안의 대를 잇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장자는 집안의 대표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조상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이다. 이에 그에게는 다른 자손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이처럼 장자는 집안을 대표하는 권리, 제사를 통해 후손들로 하여금 조상들을 기억하게 하는 권리,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런 ‘장자’ 언급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란 민족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을 때이다. 물론 이들이 애굽에서 히브리인으로 불리기는 하였다(출 2:11).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와 담판을 짓는 과정에서 열 가지 재앙을 거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야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지상에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장자’로 언급하고 있다. 필자는 이 낱말을 주목해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았다. 이 낱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또는 하나의 민족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장자가 어떤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 낱말을 중심으로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면 출애굽 이후 구체적으로 전개될 장자권의 확립을 말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물론 이 장자란 낱말이 모세 때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에게(창 25장)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창 32장). 하지만 그 때의 이스라엘은 야곱이란 한 개인에게 주어진 이름에 불과했다. 이후 야곱이 낳은 열두 아들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창 46장) 이스라엘 자손 또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큰 집단을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 전체를 이스라엘로 명명하고, 나아가 자신의 장자로 언급한 것이다. 이제 이 이름은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전환된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 전개되는

www.kci.go.kr

상황을 보면 이들은 사전에 마련된 듯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한 프로그램 안으로 편입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바로 장자의 권리와 의무를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과정이었다. 즉 이스라엘이 온전한 장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십계명 및 율법 수여를 통해 헌법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출 19:6). 그런 다음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를 통해 이들이 준수해야 할 제사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온전한 장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어지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지상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이들을 왜 대표 민족으로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준다(신 7:6-7). 이런 언급들을 정리해보면 그것은 장자의 대표권과 제사권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과 율법을 물려받는 상속권이다. 이렇게 장자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 이렇게 본 논문을 통해 장자 개념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신학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2. 오경의 장자권 이해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장자권의 정립 과정인데, 우선 장자권의

1 논문에서 다룰 범위가 오경 전체라 너무 넓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오경 가운데서 장자라는 개념과 관련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기원을 간략히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장자권이 어떻게 확립되어 가는가를 보기 위해 세 범주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중심으로 제사권을 알아보고, 둘째, 민수기와 신명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지닐 대표권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조상들(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바탕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받을 상속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장자,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신학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방법론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최종본문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정경적인 관점을 견지하고자 한다.

1) 장자권의 기원

우선 장자 개념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 기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² 이와 관련하여 핵심 본문인 야곱과 에서 이야기(창 25:27-34)가 있는데, 구약성경 중 이곳에서 처음으로 장자라는 낱말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장자권이 문제가 되기 이전에 두 아이가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여호와와의 언급이 나온다(창 25:23). 그렇게 보면 야곱은 이 신탁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셈이다. 계속되는 이삭의 별미사건과 축복 사건(창 27장)은 이 신탁과 두 형제 사이의 장자권 거래를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본문에서 부각되는 문학적 기법은 야곱과 에서를 계속 대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장자 명분이 갖고 있는 장점을 이미 알고 있는 듯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집요하게 협상에 임하는 야곱과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이익에 급

2 M. Tsevat, *ThWAT* Bd. I (Stuttgart: Kohlhammer, 1973), 643-650. 체바트(M. Tsevat)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장자를 선택함에 있어 출생 순서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개입을 강조한다. 그는 이런 현상에 대해 족장 이야기들이 장자가 특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시대를 반영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그는 장자(בְּכוֹרָה/브코르)란 낱말의 어원 및 의미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급한 에서를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거시적인 안목을 지닌 야곱과 미시적인 안목의 에서가 대조되고 있다. 또한 야곱은 장막에 거주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이 장막에 머물렀다는 기사를 떠올리게 한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장막(לְחָיִם/오헬)을 친 다음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창 12:8; 13:3, 18; 26:25). 그렇게 보면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 후반부에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용어(מְבֹרָא/브코라)가 연속적으로 네 번 나타난다(25:31-34).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에서는 이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반해 야곱은 평소부터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성격이 급해 보이는 에서는 단선적이라 지금 당장이 중요하고 진중한 성격의 야곱은 보이지 않는 장자 명분의 미래 가치를 중요시 여겼다. 이런 성품은 한 가문의 대표가 지녀야 할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자의 명분이란 낱말은 페떼르(פֶּטֶר), 즉 ‘태를 열다’와 관계가 있다. 이것은 초태생(בְּכֹרֶת/브코르)을 가리키고(출 13:2) 나아가 장자권(מְבֹרָא/브코라)과 연결된다.³ 이 권리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가정에서 장자는 귀히 여김을 받았으며 부친의 능력의 첫 열매로 여겨졌고(창 49:3),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려졌다(출 22:28). 이렇게 장자는 생전에 그리고 유산이 나누어질 때 특권을 가지고 있다.⁴ 나중에 에서는 야곱이 행한 이 거래를 속임수로 간주하는데,⁵ 이것도 모자라 이삭

3 초태생(בְּכֹרֶת/브코르)은 주로 아들과 관련된 본문에서 나타나기에 남성형으로 표기되고(창 25:13; 출 11:5; 12:29), 장자권(מְבֹרָא/브코라)은 여성형 명사로서 장자의 지위와 권리(rank and rights of first-born/창 25:31-34; 27:36)를 가리킨다.

4 이와 관련하여 신명기는 장자가 아버지 재산의 두 몫, 즉 다른 형제가 받는 양의 두 배를 받을 것을 제시하고 있다(신 21:17).

5 윤철홍, “구약성서상 장자권 매매에 관한 법신학적 고찰”, 『중앙법학』 15집(2) (2013년

의 축복도 속임수를 통해 가로챘으므로 두 번에 걸쳐 자신을 속였다고 야곱을 원망한다(창 27:36). 결과적으로 에서는 집안의 장자가 될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게다가 에서는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면서 집안을 책임질 장자로서의 기본 자격을 잃어가고 있었다(창 26:34-35). 형제간에 사소하게 시작된 장자 문제는 이삭의 축복사건과 야곱의 도피사건(벤엘/창 28장)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경되는 브니엘 사건까지(창 32장) 길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과의 개인적인 거래를 통해 장자권을 획득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이스라엘은 내 장자라)으로 승화된 것이다. 그 결과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 집안의 정통성을 이어받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이 장자권은 한 집안의 대를 잇는 차원을 벗어나 원역사(창 1-11장)로 거슬러 올라간다(참고, 창 4:26).⁶

2) 제사권

이어서 장자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립되어갔는지 그 과정을 알아본다. 먼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중심으로 제사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장자의 의무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선

6월), 107-139. 윤철홍은 현대법을 근거로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 매매의 유효성에 대한 글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그는 현대법의 관점에서 두 사람의 장자권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장자권을 둘러싼 리브가와 야곱의 행위를 비판하면서 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실정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공의를 준수할 것을 강조한다.

- 6 T. Hieke, *Die Genealogien der Genesis* (Freiburg: Herder, 2003). 토마스 히케(Thomas Hieke)는 창세기의 족보를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로 본다. 그러면서 그는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의 형태를 다양하게 분석하면서 특히 이야기의 문맥에 따라 그 기능을 밝히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의 분석은 아주 상세한데, 창세기의 10개 족보를 분석하면서 그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윤행, “창세기 족보에 나타난 장자권”, 「장신논단」 52집(5) (2020년 12월), 9-35. 여기서 저자는 창세기가 외적으로는 족보, 내적으로 장자권,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 여호와의 이름 전승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를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유교문화권에 속한 나라들은 과거 조상들이 거둔 훌륭한 업적을 기리며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고 지금도 드리고 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은 사회적이기보다는 인본주의적이고 가문 중심적이다. 그러다보니 그 행위는 조상들의 복을 받기 위한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의 제사권은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그것은 조상들의 업적을 받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구원행위를 베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제사는 사람이 행한 죄 문제를 그 중심에 두고 있었다(레 1-7장). 그 죄의 문제 또한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이 사회와 관련되어 다루어졌다.⁷ 말하자면 단순히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을 갱신하고 공동체간의 화해를 도모하는 이스라엘의 제의는 다분히 역사성과 사회성이 강했다.⁸ 즉 공동체의 선을 깨뜨린 행위를 매우 무겁게 취급하였다. 이것은 모두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기준으로 율법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 율법은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여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의 제사권은 다음 구절에 근거한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מַמְלֵכֶת כֹּהֲנִים)/마므레케트 코하님)가 되며 거룩한 백성(עַם קָדוֹשׁ/고이 카도쉬)이 되리라(출 19:6상). 전자는 이스라엘의 외형상 기능적 정체성을 가리키며⁹ 후자는 내적 정체성

7 사무엘 E. 발렌틴, 「레위기」(조용식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99. 원제는 Samuel E. Balentine, *Leviticus*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2). 제사장 신학에서 죄로 인한 부패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에 퍼진 바이러스 같아서 사회의 제도들을 공격하고 파멸시킨다.

8 노세영, 박종규, 「고대근동의 역사와 종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32-133.

9 존 더햄, 「출애굽기」(손석태 옮김), (서울: 솔로몬, 2000), 441. 원제는 John I. Durham, *Exodus*. (Waco: Word Books, 1987). 재인용. 빌드버거(Wildberger)는 사무엘하 8장 18절, 열왕기상 4장 5절에 근거하여 '마멜레케트 코하님'을 이스라엘 대한 여호와와의 주권과 열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연결한 존경스러운 칭호라고 주장한다. 김의원, "모세인

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제사장직의 기본기능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제의 절차에 따라 도와 주는 것이다(신 10:8; 18:5). 즉 일종의 봉사적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거룩한 백성이란 낱말이 알려주듯이 이스라엘이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이다(창 2:3; 출 3:5).¹⁰ 물론 이것은 외적인 구별도 해당되지만 내적인 거룩함도 포함된다. 말하자면 사회 및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죄악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다. 어쨌든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란 개념은 이스라엘의 제사권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준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는¹¹ 이것을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놓은 것이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의 수여가 마무리되고 이스라엘이 언약식을 마치자(출 24장),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며 성막 건설의 임무를 맡긴다. 출애굽기 후반부를 보면 이 성막건설 지침과 그 실행에 집중되어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구체적인 표현(출 25:8)인 동시에, 이것의 주요 기능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행위에 그 초점이 있다. 물론 성막과 그 밖의 물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

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축복: 내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출 19:3-8)”, 「신학지남」 61집(4) (1994년 12월), 87.

- 10 Richard Elliott Friedman, *Commentary on the Torah* (New York: HarperSanFrancisco, 2001), 232. 거룩한 나라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성별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Jacob Milgrom, “Law and Narrative and the Exegesis of Leviticus XIX 19”, *Vetus testamentum* 46(4) (1996, 10), 547. 그의 거룩함은 19장에 명시되어있듯이 올바르게 제의를 드리고 윤리적인 행위를 할 때 성취된다.
- 11 김희권, “구약성경의 율법들: 계약법전(출 20:22-23:33), 성결법전(레 17-26장), 그리고 신명기 법전(신 12-26장)의 원천: 십계명”, 「법학논총」 19집 (2008년 2월), 42-49. 그는 레위기의 성결법전(17-26장)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율법으로 본다.

막의 핵심은 속죄소와 같이 놓인 언약궤였다.¹² 그러면서 이 성막을 위하여 봉사할 제사장 직분도 구별하는데 이 또한 온전한 제사행위를 하기 위함이다. 이 성막은 일종의 제단 구실을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마치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창 4:26),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 것과 어울림을 갖는다(창 12:8; 13:4; 26:25; 33:20). 즉 창세기 족보에 나타난 장자권을 분석하면 그 내면에 여호와의 이름을 전승시키는 것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¹³ 즉 장자는 단순히 아브라함 한 집안의 조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 이스라엘 역사 이전부터 존재했었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출 3:15). 그와 아울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양한 과거 이력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이력은 바로 원역사(창 1-11장)에 나타난 다양한 사건들이다: 천지창조, 홍수 이야기 등.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성막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제 인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엘(אל), 엘 엘리온(אלֵּלֵיִּון), 엘 샤다이(אלֵּ שַׁדַּי) 등 초월적인 신명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이 모세에게 계시되는데 바로 여호와(יהוה)라는 이름이다(출 3:14; 6:3). 이제 이 하나님이 땅에 세워진 성막에 머뭇으로써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곳에서 행해지는 제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인간과 교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막은 히브리어로 오헬

12 존 더햄, 윗글, 585. 속죄소는 종종 화해의 장소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 앞에서 거행되는 속죄의식과 관련된 것이다(레 16장). 그 명칭(카포레트/כַּפֹּרֶת)은 분명히 카파르(כַּפַּר)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동사의 사역형은 구약성경에서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단어로서 속죄, 화해 및 거룩하게 씻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13 윤형, 윗글, 9-35

모에드(מִוֶּעֶד אֹהֶל מוֹעֵד/회막/Tent of Meeting), 즉 만남의 장소가 된다.¹⁴ 따라서 모세가 만든 제단은 이스라엘의 과거 조상들이 쌓았던 제단의 정형적인 확장 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히 자신과 이스라엘이 만날 수 있도록 격식에 맞는 제단의 식양을 계시하였다(출 25:9).

레위기 전체는 성막에서 행할 제사권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구절이 바로 레위기 19장 2절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지닌 장자권의 독특한 점은 바로 이 거룩함의 강조이다.¹⁵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본 받으라고 한다. 즉 하나님의 속성을 모방(mimesis/미메시스)하라는 것이다. 일반 사회에서도 장자가 아버지의 좋은 점을 모방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랍비 전통에 따르면 레위기의 이름은 토라트 코하님(תּוֹרַת כֹּהֲנִים), 즉 제사장들을 위한 혹은 제사장들의 지침들이다.¹⁶ 일반적으로 레위기가 제사장의 거룩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내용상 일부는 그렇지만 대부분은 모든 백성의 거룩함에 대해 다루고 있다.¹⁷ 따라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명명되었기에 그는 거기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

14 René, Péter-Contesse, *A Handbook on Leviticus*, trans. by John Ellington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92), 11.

15 사무엘 E. 발렌틴, 윗글, 239.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성소는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거룩함은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John Gammie G., *Holiness in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32-34. 레위기 19장은 아모스 5장, 미가 6장, 에스겔 18장 그리고 욥기 31장과 함께 구약 윤리의 정점들 중 하나로 꼽아야 한다.

16 빅터 해밀턴, 「오경개론」(강성열, 박철현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306. 원제는 Victor P. Hamilton, *Handbook of the Pentateuch*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01).

17 윗글, 307.

에 대해 레위기가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섬김을 받게 될 장소, 즉 성막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레위기는 이 주제를 확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자의 강조점이 제의 장소 또는 하드웨어(Hardware)에 있다면, 레위기는 태도와 바른 관계, 즉 소프트웨어(Software)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만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할 때 레위기에 대해 미리 알았다면 장자가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권리적 특권을 누리는 차원이 아니라 그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예언서에서 보듯이 역사 진행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했다. 그만큼 이 거룩성이라는 부분은 제사장으로서의 장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 조건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택한 핵심적인 이유도 바로 이 레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레위기는 죄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언급한다. 율역사와 그 이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죄라는 부정적 요소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이 원만하게 조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대책이 세워졌는데 바로 레위기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과정에서 피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것은 노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레 17:11; 창 9:5). 거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내려왔던 역사의 영적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책임을 안고 있다.¹⁸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이 장자로서 실천해야 할 제사장적인 의무를 안고 있는 것이다.

18 존 더햄, 윌글, 442.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임재를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헌신한다는 의미이다. 한동구,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비전," 구약논단 14(3) (2008. 9), 25.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중심성은 물리적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삶의 원리인 야웨의 말씀을 통하여 이룩된다.

3) 대표권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를 중심으로 장자, 이스라엘이 지닐 대표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장자는 대외적으로 집안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그에 걸맞은 특권과 책임이 부여된다. 이미 출애굽기에도 대표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출 19:6).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다. 소유, 보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세굴라(שְׂגוּלָה)의 이미지는 독특하고도 배타적인 소유를 뜻한다(신 7:6; 14:2; 26:18).¹⁹ 이스라엘은 이 대표권을 특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²⁰ 왜냐하면 그는 자기 유익적인 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민족을 대표한다는 이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기중심적으로만 행동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시내산에서 제사권을 부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땅으로 가는 과정을 민수기가 묘사하고 있다. 민수기에서 가장 부각되는 사건은 40년에 걸친 긴 광야 생활이다(민 14:34). 만일 정상적인 거리와 일정이었다면 그 보다 훨씬 더 빨리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었다(출 13:17).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그 보고 내용에 대한 백성의 반응이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했다. 백성들은 그 동안 하나님이 행한 다양한 이적들을 체험했음에도 그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민 14:11).

19 빅터 해밀턴, 윌글, 242. 불가타 역(Vulgata)은 이 단어를 peculium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낱말은 분리된 것 또는 특별한 가치를 지닌 것을 가리킨다. KJV는 관련 어휘를 나의 특별한 백성(my peculiar people)이라고 번역하는데, 여기서도 peculiar는 특유한, 특별한(distinctive, special)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김의원, “모세언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축복: 내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출 19:3-8)”, 「신학지남」 61집(4) (1994년 12월), 83.

20 박호용, 「출애굽기 강의」 (서울: 한들출판사, 2006), 112-113.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히브리어 낱말은 **רָפוּ**/불평하다, 투정하다, 투덜거리다)이다(출 15:24; 16:2, 7, 8; 17:3; 민 14:2, 27, 29, 36; 16:11, 41; 17:5, 10).²¹ 불평이란 환난 때에 하나님이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자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보다는 불신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능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보다 수동적인 면을 보였으며 나아가 과거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며(민 14:3-4) 하나님의 택함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는 모습도 계속 나타난다. 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모방의 대상인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고자 했다. 이것은 대표자격을 갖고 있는 장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다. 대표자는 집안의 지도자로서 집안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필요하다. 만약 대표자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의 대표자로 세운 그 이스라엘이 자신을 택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민 14:11) 과연 그가 대표자가 될 수 있을까? 이에 하나님은 그를 온전한 장자로 세우기 위해 광야로 보내게 되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고 그 중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다. 이처럼 장자권을 지닌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 시험을 거쳐 마침내 가나안 땅 맞은 편 모압 평지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특별히 당부의 말을 전한다. 거기서 모세는 이들을 성민(שֵׁמִימִּיּוֹן)

21 빅터 헤밀턴, *윗글*, 231.

אֱמִ/암 카도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들이 지상만민 가운데 대표권을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신 7:6)²². 이에 대해 존 더햄(John Durham)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구별되어(אֱמִ/카도쉬),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시범적인 백성(אֱמִ/암)이 될 것이다.”²³ 하지만 이들의 선택은 아브라함으로 더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원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연결시키는 인물이다. 아브라함 또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70종족²⁴ 가운데 셈계의 한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데라의 장자인 아브라함의 선택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은 원역사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역사의 진행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다.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인물을 통해 세상에 대한 플랜(Plan) A를 세웠지만 알다시피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에 하나님은 플랜 B를 세우는데 그 일환이 아브라함이다. 그 후손 가운데 야곱이라는 인물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면서 소위 구속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흐르게 된다.²⁵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역사

22 발터 칩머리, 「구약신학」(김정준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7), 66-73. 원제는 Walter Zimmerli, *Grundriss de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Stuttgart: Kohlhammer, 1985). G. von Rad, *Deutonomy, Das Fünfte Buch Mose/Deutonomium*, trans. by Dorothea Bart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6), 69. 이스라엘은 이교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특히 신명기 계통의 책에서 이방 민족인 가나안 족속과 관계 맺는 일을 엄하게 경고한다(민 23:9). 김영옥, “신명기의 선택신학”, 「신학지남」 85권(1) (2018년 3월), 67-70.

23 존 더햄, *읽글*, 442.

24 김기영, “출애굽 기사에 나타난 구원: 오경의 구성적 관점으로 읽는 출애굽 기사와 현대 크리스천의 구원이해”, 「구약논단」 87집 (2023년 3월), 29-30. 70이라는 숫자는 오경에서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로 종종 쓰여서, 야곱 가족의 수 70이 온 인류를 대변하고 있다 (창 10장과 46장 27절).

25 조지프 블렌킨소프, 「모세 오경」(박요한 영식 역), (서울: 성서와 함께, 2009), 231. 원제는 Joseph Blenkinsopp, *Pentateuch* (New York: Doubleday, 1992). 오원근, “오경의 정경

가운데서 그 의미를 갖는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면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종족의 신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이름 또는 나라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역사를 진행시켜온 존재이다. 기본전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천지창조일 것이다. 이것은 지상에 사는 모든 생물과 관련된 것이다. 천지창조 이후 역사가 비록 만족스럽지 않게 흘러왔을지라도 일관되게 흐름은 유지하고 있었다. 그 기억을 원역사가 담고 있고 족보 가운데 나타난 인물, 특히 실질적인 장자 자격을 갖춘 인물에 의해 그 기억이 전승되었다.²⁶ 만약 그 장자격의 인물들이 없었더라면 세상 역사는 그야말로 단절과 우연에 의해 진행되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Providence)에 따라 이스라엘이 선택되고 그를 통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이에 장자 이스라엘의 대표권은 한 민족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된다.²⁷

4) 상속권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중심으로 장자 이스라엘이 얻게 될 상속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장자는 제사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상속에 있어서도 그 특권을 갖는다. 성서에서도 상속이라는 용어는 주로 신학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확인시켜준다. 이처럼 신명기에서도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

적 관점으로 본 아브라함의 언약고찰”, 「구약논단」 61집 (2016년 9월), 59.

26 윤희, 윗글, 9-35.

27 에리히 쟁어, 「구약성경개론」 (이종한 역), (웨판: 분도출판사, 2012), 260. 원제는 Erich Zenger,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2004). 여호와에게 선택된 것은 이 세상에서 그의 역사적 행동의 도구가 되기 위함이다. 브레바드 차일즈, 「구약신학」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114. 원제는 Brevard S. Childs, *Old Testament Theology in a Canonical Context* (London: SCM, 1985).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온 피조물을 신적구원에 참여케 하는 수단이 된다.

의 관계성은 부자관계, 즉 부모와 자녀관계로 비유되어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유사한 상속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언약에 근거한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신 1:8; 창 17:7-8).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와의 약속은 그의 후손들이 살게 될 땅에 관한 것이었다. 그 약속은 신명기에서 강조되는데, 물론 그 땅이 실제로 주어진 것은 여호수아 때에 가서 이루어진다. 어쨌든 그 땅에 대한 중심적인 확신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지만, 단 그 땅의 문화는 조심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인근족속들 사이의 긴장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혼을 사로잡으려는 종교적 갈등이요 투쟁이었다.²⁸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한 산당들에서 행해지는 우상숭배 행위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현존을 대상화시켜서 어떤 것에 고정시킴으로써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시도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람이 제조한 물체에다 양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는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에 달려있다. 말하자면 땅의 상속권이 조건적이라는 것이다. 후대의 이스라엘이 땅

28 박선진, “요시야 개혁과 신명기 사가의 제의 중앙화 전승해석”, 『기독교 사상』 481호 (1999. 1), 100. 제의 중앙화의 관점에서 요시야의 개혁정책들을 조망할 때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요시야의 산당철폐와 산당 제사장 파문이다. 이것은 산당에 대하여 철저히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한 신명기 역사의 서술과도 일치한다. 폴 하우스, 『열왕기 상하』 (신윤수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21), 568. 원제는 Paul R. House, *The New American Commentary Kings 1 & 2* (Nashville: B&H, 1995). 요시야를 통해 10가지의 개혁이 시행된다. 최종원, “여호수아 24장 1-13절의 전승사와 육경의 구성사적 접근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90집 (2023년 12월), 191.

에서 추방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다.²⁹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펼칠 의무도 안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그 땅에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신 9:5).”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상속받은 땅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통해 그 땅에 정의로운 정신을 새롭게 펼칠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이 상속할 또 하나의 자산은 바로 율법이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다양한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모세는 이 율법을 대대로 기억할 것을 강조한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신 31:24-26).”³⁰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상속받은 땅에서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당부한다(신 31:13). 율법 가운데 십계명은 으뜸의 지위를 갖고 있고 변하지 않으며 다른 율법들과는 분리되어 있다. 무엇보다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과 그 다음 계명들은 오늘날에 적용해도 무리 없을 정도로 잘 규정되어 있다. 확실히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요한 모든 영역, 말하자면 중

29 김선중, “성결 법전의 땅”, 『Canon & Culture』 5권(1) (2011년 4월), 125.

30 윤영탁, “신명기 연구”, 『신학지남』 45집(1) (1978년 3월), 15.

교적, 가족적, 사회적 영역의 모든 관심사들을 결합시키고 있다.³¹ 율법의 우선적 기능은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체의 삶을 질서지우고 규정하는 데 있다.³²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공동체를 질서정연하고 안정된 사회로 만들어준다. 특히 율법의 의로운 특성은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노예를 위한 관심이며 동시에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공의에 있다. 이에 신명기의 많은 법령들은 이스라엘의 개개인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의 길과 대조되는 명백한 신명기적 강령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강조이다(신 18:18-22). 모세는 이런 율법을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전달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갖고 있다. 즉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토라를 가르치라는 것이다(신 4:9-10; 6:7; 11:1-7, 19; 29:22-23; 31:33).³³ 이 책에는 피상속인으로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있다. 이처럼 신명기는 항상 다음 세대를 겨냥하고 있다. 그것은 현세대를 과거로 소환하며 과거의 전승을 현재의 상황에 새롭게 접목시킨다. 땅과 율법은 서로 보완적인데 실로 모든 율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땅 선물을 영구적으로 누리도록 보장하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견고케 하기 위하여 주어졌다.³⁴ 이렇게 율법 혹은 계명은 계약적인 삶을 구

31 이형국, “모세율법의 법적체제와 법사상적 의의”, 「신학지남」 39집(2) (1978년 6월), 23-36.

32 이동규, “구약성서와 종교개혁”, 「구약논단」 66집 (2017년 12월), 296. 요시아의 개혁은 종교, 정치, 사회 등을 포괄하는 혁신적인 개혁이었다. 여기서 율법 책은 단순히 책이 아니라 개혁의 근본이요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매뉴얼 기능을 하였다.

33 에리히 쉐어, 윗글, 256.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반복학습이다. E. W. Nicholson, *Deuteronomy and Tradition* (Oxford: Basil Blackwell, 1967), 46. 신명기의 언어는 율법의 언어가 아닌 마음과 양심의 언어이다.

34 패트릭 밀러, 「신명기」 (김희권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280. 원제는 Patrick

체적으로 적용시키는 도구이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된 백성이다(창 18:19).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들이 상속받은 가나안 땅 경계를 넘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데 그 해답으로 율법의 상속권을 제시하고 있다.³⁵ 그들이 요단 저편에서 대면하게 될 문제점들은 이 말씀들이 가슴에 새겨질 때만 해결될 수 있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모세가 상속시킨 이 율법을 자손들에게 계속 상속시킬 의무도 갖게 된다.

3. 장자 이스라엘의 신학적 의미

그러면 장자, 이스라엘이 지닌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장자는 맨 먼저 낳은 아들이다. 그렇다면 그 밖의 다른 아들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들은 누구인가? 출애굽기 문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으로 거듭나는데 그렇게 볼 때 다른 아들들은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민족들이라고 볼 수 있다(창 10장).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장자로 자리 매김하면서 다른 민족들 앞에 서있다.³⁶ 따라서 하나님은 이

D. Miller, *Deuteronomy* (Louisville: John Knox, 1990). 이미숙, “신명기의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구약논단』 55집 (2015년 3월), 52.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자손 번성과 장수와 같은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땅, 복, 율법 준수, 이 세 가지가 불가분리의 관계임을 보여준다.

35 사무엘 E. 발렌틴, 윌글, 43. 장석정, “신명기에 나타난 땅의 개념”, 인문학연구 9집 (2005년 2월), 268.

36 고든 웬햄, 『창세기 16-50』 (윤상문, 황수철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342-343. 원제는 G. J. Wenham, *Genesis 16-50* (Waco, TX: Word Books, 1987). 웬햄(G. J. Wenham)은 바울의 해석(롬 9:10-12)의 예를 들며 장자권이 윤리적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스라엘에게 다른 민족들과 관련하여 색다른 일을 맡겼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4장 23장에 따르면 그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다. 즉 그것은 제사권으로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일이다(창 4:26).³⁷ 결국 이것은 그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자신의 공적이며 사적인 행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이념(공의와 정의)을 널리 전파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여호와를 누가 어떻게 기억하였는가?

한편 보로프스키(Oded Borowski)에 따르면 다윗 왕조가 장자로 여겨진다고 하는데, 이는 여호와가 모든 특권들을 지닌 장자로서 다윗을 입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⁸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다윗의 조상 유다가 전체적으로 요셉 이야기(창 37-50장)에서 돋보이는 것은 역사 기록의 주관자가 어느 지파의 추종자인지 짐작하게 한다. 우리나라 역사에 비추어 볼 때도 고려시대 때 쓰인 삼국사기에서 신라의 기록이 백제 및 고구려에 비해 그 분량이 많은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요셉 이야기에서 여러 측면에서 유다가 의도적으로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창 38, 44, 49장). 그러나 필자가 볼 때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요셉, 유다, 레위 지파에 의해 유지되어왔다고 본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따르면 장자권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을 이루는 요셉(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남유다 왕국의 유다 지파, 그리고 성전에서 수행되는 제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

37 윤형, “구약 신학적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이름”, 『Canon & Culture』 7권(2) (2013년 10월), 156-158. 윤형, “구약성서 관점에서 본 문화의 생성과 발전(창 4:17-26)”, 『Canon & Culture』 10권(2) (2016년 10월), 234-238.

38 Oded Borowski, *RGG⁴ Bd 2* (Tübingen: Mohr Siebeck, 1999), 1471-1473.

는 레위 지파³⁹가 그 역할을 분담한다. 이런 점에서 유다만이 장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북왕국이 중간에 사라지고(기원전 722년) 남왕국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유다가 언약 전승의 상속자로서 강조되는 점만큼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포로기 이후 문헌인 역대기서가 이렇게 남유다 중심의 관점을 갖고 기록되었다. 배희숙 또한 요셉 이야기에 등장하는 유다와 르우벤의 비교를 통해 장자권이 유다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⁴⁰ 그는 무엇보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유다가 보여준 연대감과 헌신적 책임감이 그를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로 이끌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구약성서에서 유다를 장자로 표현한 곳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고 역대기가 밝힌다(대상 5:2). 그의 분석은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과 베냐민을 둘러싸고 나타는 형제들 사이의 갈등과 그 해소과정에서 유다가 행했던 역할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형식적인 역할, 즉 제사권은 어느 정도 감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보여준 행위들은 여호와가 맡겨준 장자의 자격을 가졌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지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집속한 백성으로서 대표권을 갖게 되었다. 이에 하나님과 그의 만남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구약성서를 통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흔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장자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자격 여부 문제가 아니라,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호와와의 이름 전승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39 왕대일, “레위기의 구조, 레위기의 신학”, 「신학과 세계」 31호 (1995년 12월), 10-18. 우택주, “고대 이스라엘의 레위인은 누구였는가?”, 「구약논단」 89집 (2023년 9월), 109-144.

40 배희숙, “요셉 이야기에 나타난 유다와 르우벤”, 「장신논단」 43권 (2011년 12월), 35-58.

4.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장자, 이스라엘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것의 핵심적인 기능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적 역할이다.⁴¹ 이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여러 민족들을 대표하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사권이라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나아가 그것을 실제로 지상의 한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땅에 대한 상속권도 받았다. 하지만 그 권리를 잘못 사용할 위험을 방지하여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 기준인 율법을 지킬 의무도 받았다. 따라서 장자는 권리만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동시에 그에 수반되는 의무도 갖고 있다. 참으로 장자권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이것은 한 민족이 지닌 능력의 여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다. 아쉽게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런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장자의 권리를 다른 이에게 넘겨야 할 것을 숙고해야만 했다.

참고문헌

- 고든 웬햄, 「창세기 16-50」 (윤상문, 황수철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원제 Wenham, G. J., *Genesis 16-50* (Waco, TX: Word Books, 1987).
- 김기영, “출애굽기사에 나타난 구원: 오경의 구성적 관점으로 읽는 출애굽 기사와 현대 크리스천의 구원이해”, 「구약논단」 87집 (2023년 3월), 11-44.
- 김선중, “성결 법전의 땅”, 「Canon & Culture」 5권(1) (2011년 4월), 117-143.
- 김영욱, “신명기의 선택신학”, 「신학지남」 85권(1) (2018년 3월), 63-81.

41 버나드 앤더슨, 「구약성서이해」 (강성열, 노항규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772. 원제는 Bernhard Anderson,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1998).

- 김의원, “모세언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축복: 내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출 19:3-8)”, 『신학지남』 61권(4) (1994년 12월), 77-97.
- 김희권, “구약성경의 율법들: 계약법전(출 20:22-23:33), 성결법전(레 17-26장), 그리고 신명기 법전(신 12-26장)의 원천: 십계명”, 『법학논총』 19집 (2008년 2월), 29-63.
- 노세영, 박종규, 『고대근동의 역사와 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박선진, “요시아 개혁과 신명기 사가의 제의 중앙화 전승해석”, 『기독교 사상』 481호 (1999년 1월), 94-110.
- 배희숙, “오십 이야기에 나타난 유다와 르우벤”, 『장신논단』 43권 (2011년 12월), 35-58.
- 박호용, 『출애굽기 강의』 (서울: 한들출판사, 2006).
- 발터 침멀리, 『구약신학』 (김정준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7), 66-73. 원제 Zimmerli, Walter, *Grundriss de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Stuttgart: Kohlhammer, 1985).
- 버나드 앤더슨, 『구약성서이해』 (강성열, 노항규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원제 Anderson, Bernhard W.,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1998).
- 브레바드 차일즈, 『구약신학』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원제 Childs, Brevard S., *Old Testament Theology in a Canonical Context* (London: SCM, 1985).
- 빅터 해밀턴, 『오경개론』 (강성열, 박철현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원제 Hamilton, Victor P., *Handbook of the Pentateuch*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01).
- 사무엘 발렌틴, 『레위기』 (조용식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원제 Balentine E. Samuel, *Leviticus*.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2).
- 에리히 쟁어, 『구약성경개론』 (이종한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2). 원제 Zenger, Erich,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2004).
- 오원근, “오경의 정경적 관점으로 본 아브라함의 언약고찰”, 『구약논단』 61집 (2016년 9월), 41-75.
- 윤철홍, “구약성서 상 장자권 매매에 관한 법신학적 고찰”, 『중앙법학』 15집(2) (2013년 6월), 107-139.
- 윤영탁, “신명기 연구”, 『신학지남』 45집(1) (1978년 3월), 8-27.
- 윤형, “창세기 족보에 나타난 장자권”, 『장신논단』 52권(5) (2020년 12월), 9-35.
- 이동규, “구약성서와 종교개혁”, 『구약논단』 66집 (2017년 12월), 286-323

- 이미숙, “신명기의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구약논단』 21집(1) (2015년 3월), 33-59.
- 이형국, “모세율법의 법적체제와 법사상적 의의”, 『신학지남』 39집(2) (1978년 6월), 23-36.
- 왕대일, “레위기의 구조, 레위기의 신학”, 『신학과 세계』 31호(1995년 12월), 7-36.
- 장석정, “신명기에 나타난 땅의 개념”, 『인문학연구』 9권 (2005년 2월), 263-288.
- 조지프 블렌킨소프, 『모세 오경』 (박요한영식 역), (서울: 성서와 함께, 2009). 원제 Blenkinsopp, Joseph, *Pentateuch* (New York: Doubleday, 1992).
- 존 더햄, 『출애굽기』 (손석태 옮김), (서울: 솔로몬, 2000). 원제 Durham, John I., *Exodus*. (Waco: Word Books, 1987).
- 최종원, “여호수아 24장 1-13절의 전승사와 육경의 구성사적 접근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90집 (2023년 12월), 170-200.
- 패트릭 밀러, 『신명기』 (김희권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원제 Miller, Patrick D. *Deuteronomy* (Louisville: John Knox, 1990).
- 한동구,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비전”, 『구약논단』 14집(3) (2008년 9월), 10-30.
- Borowski, Oded, *RGG⁴Bd 2*. (Tübingen: Mohr Siebeck, 1999).
- Friedman, Richard Elliott, *Commentary on the Torah*, (New York: HarperSanFrancisco, 2001),
- Gammie G. John, *Holiness in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 Hieke, Thomas, *Die Genologien der Genesis* (Freiburg: Herder, 2003).
- Milgrom, Jacob, “Law and Narrative and the Exegesis of Leviticus XIX 19”, *Vetus testamentum* 46(4) (1996. 10), 544-548.
- Nicholson E. W., *Deuteronomy and Tradition* (Oxford: Basil Blackwell, 1967).
- Péter-Contesse René, *A Handbook on Leviticus* (Trans. by John Ellington),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92).
- Tsevat, M. *ThWAT Bd. I* (Stuttgart: Kohlhammer, 1973).
- Von Rad, G. *Deuteonomy, Das Fünfte Buch Mose/Deuteonomium* (Trans. by Dorothea Bart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6).

검색어

오경, 장자권, 제사권, 대표권, 상속권

[ABSTRACT]

The Theological Meaning of the First-born Son, Israel in the Pentateuch

Hyung You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theological meaning of the firstborn son, Israel, in the Pentateuch with a canonical approach and to grasp how such meaning is established. Its origin is to be found in Genesis, after which it is explained in detail in Exodus. After the Israelites arrived at Mount Sinai, they participated in a process that established the right of the firstborn son. This paper explains in detail the conditions required for one people to be considered a rightful firstborn son. First, its origin is examined in Genesis, after which its process is analyzed in three parts. Above all, the priestship of the firstborn son is dealt with in Exodus and Leviticus, which explain the priestly duties he must carry out. Secondly, his power of representation is written in Numbers and Deuteronomy.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 path of the firstborn son is not easy. Deuteronomy explains why God has chosen Israel as a firstborn son of the various peoples in the world. Thirdly, his right of inheritance is accounted for on the basis of the covenant of their grandfathers (Abraham, Isaac, and Jacob), under which God made a promise to them that they would inherit the land. Theologically, the concept of the firstborn son, Israel, shows that he is not simply a country in a world, but has a purpose for the entire world. Its concrete expression

www.kci.go.kr

is that “you shall be to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and it is well summarized in the three rights mentioned above. This article thus concludes that the firstborn son is a critical concept to comprehend the identity of Israel.

key words

Pentateuch, Birthright, Right of Sacrifice, Representative Authority,
Right of Inheritance

투고일: 2024년 04월 10일

심사일: 2024년 04월 15일

게재 확정일: 2024년 05월 11일

www.kci.go.kr